

“불교계에 심려끼쳐 죄송”

‘월간중앙’ 법장스님 사과방문... 범불교도대회 유보

‘월간중앙’ 8.9월호 문제가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이장규 대표이사 및 ‘월간중앙’ 김진용 대표이사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이장규, 김진용 대표이사는 8월 2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사과문을 전달했다.

월간중앙은 사과문에서 “지난 8월호 월간중앙에 역사적 근거가 없는 ‘갖은 양반들의 성담판’이라는 글이 많은 훌륭한 스님들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9월호에서 ‘조계종의 4대 의혹을 캔다’는 제목으로 조계종단의 의혹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벗어나 본의 아니게 총무원장 스님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고 밝혔다.

월간중앙은 또 “실추된 종단과 불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약속드린다”며 △불교계 언론단체에 사과광고 게재 △월간중앙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월간중앙 8.9월호 책자 증편 제작 및 배포 금지 △모든 조치들은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이장규 대표이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2005년 8월 31일 12:00한 이행 등을 약속했다. 이와관련 월간중앙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약속사항을 이행했다.

월간중앙 불교 편협 규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월간중앙 공대위)는 30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일 개최하려던 범불교대회 유보를 선언했다.

월간중앙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종단을 음해하려는 일부 불지각한 집단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월간중앙 공대위는 또 “매스미디어의 불교왜곡 또는 왜곡해종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으로서의 ‘천수천안 운동’을 조계사를 중심으로 전국 각 사찰과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가운데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월간중앙 공대위는 이 외에도 “아직도 자기방성을 하지 않고 월간중앙 경영진의 참회와 사과문에 대해 반박성명을 내고 종단이 자기에게 공식사과를 하라는 등 적반하장을 일삼고 있는 8월호 성담판 기고자 백승종의 행위에 대해 모든 대응방

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승종씨는 29일 일부 언론사에 보낸 글을 통해 “중앙이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과를 발표한 점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한다”며 사과문을 파기하고 월간중앙과 조계종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월간중앙 공대위는 9월 1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종합 보고회를 열고 공식 해산을 선언했다.

“총장 용퇴하라”

東大 이사회서 정운스님 요구

동국대 이사장 정운 스님이 흥기삼 총장의 용퇴를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발언은 8월 3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12차 동국대 이사회 기타 안건 논의도중, 최근 교수회와 대학당국의 갈등으로 인한 학사행정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정운 스님은 “교수회 합의 내용을 보면 거의 백기를 든 수준이다. 이쯤에서 총장이 용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장은 “결코 교수회에 굴복한 것이 아니다”라며 용퇴 요구를 비껴갔다.

한편, 서울·경주캠퍼스 교수회가 8월 30일 교수총회를 열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8일 경주캠퍼스 부총장의 사퇴, 서울 기획인사처장 사임, 교수연구업적평가제 시행 연기 등을 조건으로 대학당국과 교수회가 전격 합의함으로써 교수총회를 연기했다.

선정기준은 무엇?

편찬위가 정한 친일불교인의 선정 기준은 “조선불교단·조선 불교중앙교무원·총본산건설위원회·조선불교총본산설립위원회·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등의 핵심간부, 일본불교시찰단 복지 황근우위원 참여, 친일논설 또는 부일협력 강연회 반박 참여”다. 여기에 더하여 친일 행위의 자발성과 반박성이 중시됐다.

친일단체의 핵심간부 경우에는 적극적인 친일 의지를 갖고 활동한 것으로 간주해 친일인사에 포함시켰다.

편찬위의 선정 기준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친일단체의 범주, 편찬위는 조선불교중앙교무원·총본산건설위원회·조선 불교총본산설립위원회 등을 친일 단체로 봤다.

근현대불교사 연구자 박희승씨는 “조선불교중앙교무원 등의 단체들은 교단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들 단체가 친일단체로 규정되면 조선불교까지도 부정되는 셈”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한동민 씨(수원시 전문위원)는 “1911년 사찰령이 공포된 이래 총독부가 불교계를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온 탓에 교단 자체가 친일화된 측면이 있어 친일단체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선운사 중앙총회의원 보원스님 당선

조계종 제 13대 중앙총회의원 고창선운사 보원 선거에서 보원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보원 스님은 1974년 사미계, 76년 구족계를 수지한 보원 스님은 선운사 총무를 역임했으며 현재 선운사 석상암 암주로 있다.

‘중무원조합’ 설립키로

조계종 중무원 노조 설립이 철회되는 대신 중무원 조합 설립이 추진된다.

원우회(회장 양진수)는 9월 1일 임

■ 불교계 ‘친일인사명단’ 어떻게 볼 것인가

“‘위장친일’ 등 특수성 감안해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 이하 편찬위)와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8월 29일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명단은 해방 후 처음 이뤄진 친일 인사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적절성에 대한 시비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편찬위가 정한 친일불교인의 선정 기준은 “조선불교단·조선 불교중앙교무원·총본산건설위원회·조선불교총본산설립위원회·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등의 핵심간부, 일본불교시찰단 복지 황근우위원 참여, 친일논설 또는 부일협력 강연회 반박 참여”다. 여기에 더하여 친일 행위의 자발성과 반박성이 중시됐다.

조계·태고 등 주요종단 ‘침묵’

지암·구하 문도 등 ‘재고’ 주장

친일단체의 핵심간부 경우에는 적극적인 친일 의지를 갖고 활동한 것으로 간주해 친일인사에 포함시켰다.

편찬위의 선정 기준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친일단체의 범주, 편찬위는 조선불교중앙교무원·총본산건설위원회·조선 불교총본산설립위원회 등을 친일 단체로 봤다.

근현대불교사 연구자 박희승씨는 “조선불교중앙교무원 등의 단체들은 교단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들 단체가 친일단체로 규정되면 조선불교까지도 부정되는 셈”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한동민 씨(수원시 전문위원)는 “1911년 사찰령이 공포된 이래 총독부가 불교계를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온 탓에 교단 자체가 친일화된 측면이 있어 친일단체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친일을 바라보는 불교계 내부의 시각이 새로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집 진각종총학연구원 상임 연구원은 “일제 시대를 살지 않았던 우리들이 그 당시를 평가할 때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며 “친일문제에 대한 불교계 나름의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현고 스님은 “역불책으로 조선시대 500여 년간 사람대접조차 받지 못하던 스님들에게 호불(德佛)은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고 전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님들의 호불 행위는 친일로 비쳐질 소지가 있었다”며 “‘친일-항일’이라는 잣대뿐 아니라 ‘호불-배불(排佛)’이라는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현고 스님은 “역불책으로 조선시대 500여 년간 사람대접조차 받지 못하던 스님들에게 호불(德佛)은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고 전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님들의 호불 행위는 친일로 비쳐질 소지가 있었다”며 “‘친일-항일’이라는 잣대뿐 아니라 ‘호불-배불(排佛)’이라는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반응은?

이번 친일인사 선정과 관련한 반발 움직임은 지암·구하 스님의 문도 사이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위장친일의 개선성과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친일 여부 판단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지암불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암 스님(이종욱)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성담 스님(지암불교문화재단 상임이사)은 “지암 스님은 조계종단을 세우고, 조계사를 건립함으로써 오늘날 조계종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라며 “타종교들이 일본단체에 종속되는 상황에도 한국불교가 독자종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보면

지암 스님의 친일은 위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하 스님의 손자자인 현문 스님(통도사 주지) 또한 구하 스님의 위장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문 스님은 “당시는 겉으로 친일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통도사 대표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시대”라며 “오늘날의 잣대로 보고 친일이라 판단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근현대불교사 전공의 김광식 교수(부천대)는 “구하 스님과 지암 스님은 항일과 친일의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인물로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거리”라며 “사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진면목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찬 위 측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서 제시한다면 기꺼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반응과 달리 조계·태고 등 종단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63명에 달하는 불교계 인사들이 친일인사로 규정된 것을 감안할 때 무반응은 다소 의외다.

침묵의 배경에는 참회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고 스님은 사견임을 전제로 “오늘날 조계종은 정화를 통해 친일불교를 청산했기 때문에 친일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 또한 사견으로 “일제말기 조계종단은 분규 이전의 승단으로서 태고종과 조계종의 공통된 ‘정상’”이라며 “불교계가 함께 연구해서 사실을 밝혀내고, 잘못이 드러나면 함께 참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선원장들이 중국에 가는 뜻은?

고우스님 등 22명 5~21일, 선종 성지 순례

조계종을 대표하는 선원장스님들이 육조혜능으로부터 한국에 전해진 선종의 맥을 찾아 떠난다. 고우 무어 해곡 현산 인각 일오 의정 설우 정찬 스님 등 조계종 <간화선> 수행지침서 편찬에 참여한 선원장 22명이 참가하는 이번 선종 유적지 순례는 9월 7~21일까지로 중국 선사들의 주석도

랑과 수행처를 참배한다. 조조 달마선사가 번역했던 소림사 달마동, 2조 혜가선사의 해가사, 3조 승찬선사의 산곡사, 4조 도신선사의 동산선사, 5조 홍인선사의 오조사, 6조 혜능선사가 주석하던 남화사 및 등신불 등과 조주선사 관음원, 임제사 등을 참배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루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전불교 사암연합회 제18대 회장 운봉스님 취임

존경하는 고승대덕 큰 스님을 비롯한 불자 여러분!
대전불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과 단결이 요구되는 이 때 대전 불교사암연합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어 그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지역의 원로 큰 스님을 비롯한 각 사암의 대덕 큰 스님들의 지도편달과 불교계 지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으로 대전불교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샐린 것을 물리치고 정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혹자혹위(威慈感威)라 때로는 자비로서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포용하고 때로는 위엄으로서 꾸짖고 제압하여 또 다른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벌을 가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자비일 것이라 여기고 반드시 파사현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대덕 큰 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
미력한 소남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곳 한발 벌 대전을 부처님의 정법도량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원명단		회장 소원사 운봉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포교부회장 섭외부회장 사회부회장 재무부회장 의전부회장 교정부회장 조직부회장	대원정사 송림사 녹야원 광수사 (동)동광사 광제사 청화사 일성사 교정부회장 달마사	도안 대연 형권 경천 동화 석준 효경 영봉 용주 원욱	인권부회장 유성사암회장 감사 감사 호계원장 포교원장 학술원장 교육원장 심의원장 비구니원장
총무부장 사서실장 교무부장 포교부장 섭외부장 재무부장	안국사 금당사 대승선인당 관음사 대원사 법동사회복지	남산 도광 혜연 법계 법광 보안	호법부장 문화부장 인권부장 복지부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현수 도일 지철 일봉 일화 진성 우석 법천 복진 영진	중암사 여래사 신덕선인당 약사선회 사암연합회	철린 각립 의당 은혜 이연희 유현숙	

대전불교 사암연합회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55-4번지 서우아파트 상가202호 • 전화: (042)526-1080 / 팩스 (042)526-1084